

2002년을 맞이하여



오 점 록
한국도로교통협회 회장

신년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1966년도에 창립 출발하여 도로교통기술 발전을 위한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를 주관하였고, 도로건설공사의 기본인 각종 도로설계기준과 시방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등의 학술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부터는 회원 배가운동을 펼쳐 박사 81명, 기술사 367명 포함 전문기술자 총 1,012명, 설계용역회사 38개사, 건설회사 45개사, 기타 기관 58개사 회원의 거대조직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금후부터는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도로건설기술 개발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근년 우리 나라는 경제활동의 확대와 교류범위의 광역화에 수반하여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유연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고 있으며, 물류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공로 운송수단의 주체인 자동차 보유대수는 '90년대를 분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일천 이백만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로 기술인들은 국민의 새로운 생활양식과 다양한 욕구에 호응하고 활력 있는 사회 및 경제 형성의 공헌, 그리고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공간의 창조를 목표로 한 도로망의 정비와 기능을 향상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규격 도로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경제적인 제약과 특히 근간에는 「도로건설이 환경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각계로부터 저항을 받는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현대사회의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대책을 위하여 우리 한국도로교통협회에서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도로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기법을 연구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2003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2002년 6월에는 축구의 대전인 월드컵대회가 우리 나라 10개 구장에서 개최되고, 세계 각국 선수를 필두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관리인들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기장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지혜를 모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잘 가꾸어진 우리 나라 도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제11회 도로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 행사에서는 학술 및 기술을 발표할 기회가 부여되고 이제까지의 도로건설기술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신기술 및 기자재에 대한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년을 맞아 회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도로교통협회를 구심점으로 모든 회원이 하나가 되어 상호 우호증진은 물론 새로운 기술 교류 등 도로건설기술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더욱 알찬 한 해가 되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